

송하진, 진안군 찾아 희망대화 진행

'가위박물관' 방문해 시설 관계자 격려·토달관광 발전방향 의견수렴... DRT 시승 체험도

송하진 지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일정으로 2일에 네 번째 방문지인 진안군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항로 진안군수, 김현철 도의원, 김종철 도의원, 방문지 사업관계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

송 지사는 먼저 지난해 12월 개관한 세계 유일의 '진안 가위 박물관'을 방문해 개관에 힘쓴 이재명 문화원장, 이대만 관장과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가위 박물관 방문은 가위라는 독창적인 콘텐트를 토달관광과 연계해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가위박물관은 전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마이산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역사박물관과 마이산, 금당사, 은수사 등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연계해 나간다면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가위박물관은 2년 전 2015년 2월 시군 방문시 진안군에서 건의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독창적인 새로운 관광자원과 문화자산을 개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여 전북 토달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토달관광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를 전북



2017년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로 2일 진안군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이항로 진안군수와 백운면 두원마을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시승 체험을 하고 있다.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전북투어패스를 본격 시행하는 등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백운면 두원마을을 방문해 마을 현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나누고 국내 최초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시승 체험을 실시했다.

노선과 정시성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전북도의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일명 콜버스) 시범사업이 행사부주관 2015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전북도의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서비스는 정부 3.0 선도과제로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DRT 운영 및 관리를 전산화하는 DRT 운영프로그램 개발 중이며 올 상반기 중에 전국에 배

포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전국최초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 표준모델로 성장시키는 것도 보람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콜버스를 행복버스, 효자버스크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민편의 현장중심으로 구현해야 교통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실감했다"면서 "특히,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 도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진안=우태민 기자

전북도, '해양수산발전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2일부터 3일까지 고창 선운산유스호스텔 및 랏사르 고창갯벌센터에서 도와 시·군, 어업인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전북 해양수산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해양수산부의 제도약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해 협업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도내 해양수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2일에는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해양수산정책 추진방향,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 어촌본부장이 어촌산업의 미래 비전과 6차 산업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고,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이 전북 해양수산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군산대학교 류동기 교수가

'전북 해양수산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거쳐 전북 해양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날인 3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창 갯벌이 있는 랏사르 갯벌연구센터에서 랏사르 습지 현황,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지역 견학을 통해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승구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북 해양수산업의 문제점을 절근근사(切靚近思)해 해양수산업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돼 해양수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맞춤형 컨설팅 실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를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자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중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그동안 생태관광 사업을 위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매년 8억원씩을 지원해 왔으나, 생태관광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위적인 불필요한 기반 구축 등 문제점이 도출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이 3년차임에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지역, 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 사업추진이 아니 되는 지역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정책 수행도, 생태관광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지

역공통체 추진 등 3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현장 실시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시군 1:1 코칭 절차로 추진되며, 현장 실시에는 시군 담당부서 정책 이해와 업무 조감능력, 지역주민의 생태관광 이해와 참여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인터뷰가 진행된다.

또한 14시군 특성에 따라 3개 유형 구분, 선택과 집중지원으로 선도 모델을 조기 정착시켜 전북도 생태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생태관광 선도모델을 조기 정착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와 시·군의 협업 대응을 요청했다.

/인재용 기자

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

전북도는 3일 정읍을 시작으로 11월까지 30회에 걸쳐 시군 주민 3,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지진과 화재사고, 노인층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 실제 일상생활 속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과목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생활안전교육과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김철모 안전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의 위기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상확대와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 실시해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도, 기금운용본부장과 환영 인사·간담회 가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전북도는 2일 기금운용본부장과 환영 인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강민욱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참석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며 지자체-이전기관 간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송하진 지사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환영하고 이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

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북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한 금융산업과 마이산산업을 적극 육성해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550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 본부의 소재지를 전북도로 한다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2014년 국토교통부 지방이전변경계획이 승인되면서 전라북도 이전이 확정됐다.

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4월 전주시 만성동에 신사옥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되고 313명의 기금운용본부

전체인원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도는 도내 경제·관광·MICE 등 각계 산업에 미치는 기금운용본부 이전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해 업무의 조기현실화를 이뤄 낼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분양, 이주정착금 지원, 취득세 감면 연장 지원, 임시주차장 마련, 익산역-혁신도시 간 교통수단 확충하는 등 주거·교육·교통의 다방면으로 정주여건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옥외광고업무 관계자 워크숍

행정자치부 주관의 2017년도 전국 옥외광고업무 관계자 워크숍이 2일부터 3일까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전국 옥외광고업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발전 방안,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 업무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 경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워크숍 참석자들은 전북투어패스카드를 구입해 행사 뒤 한옥마을 체험관광 등을 즐겨 볼 계획이다.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재용 기자

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도는 2일 도청 공연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운영효율화,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안내, 재무·회계교육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내실 있는 서비스를 위해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운영효율화 방안 등 재무·회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도내 노인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